11th Story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Lazarus

www.kidworship.kr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 11th Story –



나레이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 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구요. 예수님은 세 명 모두 많이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아프다는구나. 거기까지 이틀은 길을 가야 하는데,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도마 하지만 주님, 잠들었으면 그냥 혼자 힘으로 깨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 네, 맞습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들아, 내가 '나사로가 자고 있다'라고 말한 진짜 뜻은, 사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이란다.

제자들 네? 아…

나레이션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도착하고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있었고, 게다가 무덤에 들어간 지도 벌써 4일이나 되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밖으로 달려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마르다 나의 주님, 만약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저는 압니다.

예수님 마르다야,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 네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 바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란다.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 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마리아 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 입니다.



나레이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슬프게 우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나사로는 어디에 있느냐?

마르다 주님, 이리로 와보십시오.

나레이션 다같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 주님, 오라버니가 무덤에 장사 된지 벌써 4일이나 되어서 냄새가 심합니다.

예수님 마르다야,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어서 저 돌을 옮기거라.
아버지여,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서 있는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준비되었느냐?

제자들, 마르다, 마리아 네!!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레이션 나사로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오셨을 때 그는 이미 무덤 안에서 4일이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덤으로 걸어가셨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사로는 걸어 나왔어요!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그의 무덤에서 살아나서 자기발로 걸어 나왔어요!

제자들, 마르다, 마리아 우와! 어머나! 놀라워! 왠열~~ 엄마~~

예수님 그를 풀어주어서 걸어가도록 하여라.

나사로 나의 주, 예수님!

예수님 안녕, 나사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 오빠~~~! 고맙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

나레이션 고맙습니다!
이 기적을 두 눈으로 지켜본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있던 사람들 또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몇몇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었어요.



나레이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더욱 화가 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바리새인 1	예수를 어떻게 좀 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가 한 일을 듣는 게 지긋지긋 합니다!
바리새인 2	나는 그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이야기를 들었소!
바리새인 3	나는 그가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바리새인 4	나는 그가 사악한 영혼을 꾸짖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바리새인 1	그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 먼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한다니… 모두가 그를 좋아하오! 그가 이 일을 계속 하도록 놔둔다면, 모두가 그를 믿을 것이오.
바리새인 3	그러면 로마인들까지도 몰려올 것이오!
바리새인 4	그렇다면 로마인들이 이 나라를 없애버릴 것이오!
나레이션	바리새인들이 예수 때문에 회의를 하는 동안 그 중 한 명이 일어나 말했어요. 그는 대제사장인 가야바였어요.
가야바	아니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바리새인	아, 그래! 좋은 생각이오 역시~~
나레이션	그날부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